

방송인 박정숙 '한류 전도사' 나서
하버드대 한류 토론회서 논문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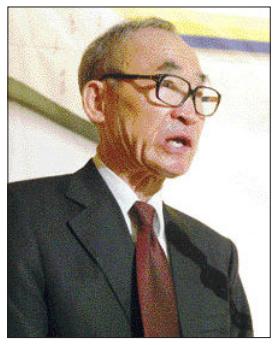
방송인 박정숙이 한류 전도사로 나섰다.
지난 16일 미국 하버드대 행정대학원인 케네디스쿨에서 열린 '한류 인 아시아 : 다이얼로그(Hallyu in Asia : A Dialogue)' 토론회는 한류를 학문적으로 접근한 첫 번째 행사였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이 행사의 공신이 박정숙이다. 현재 컬럼비아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박정숙은 지난해 9월부터 이 행사 준비에 뛰어들었다.

행사를 준비한 제이슨 임 국제협상클럽 회장은 "박정숙씨가 한류를 국제정치와 연계시켜 연구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한류 이벤트가 케네디스쿨의 문턱을 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정숙은 이번 토론회에서 '국제관계의 이론 : 구성주의(Constructivism) 시각에서 본 아시아 국제관계를 재구성한 한류의 역할'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아시아에서 새롭게 인한 한류를 국제관계를 규정짓는 하나님의 국제질서로 조명한 것이다.

시인 고은씨 서울대 초빙교수 임용



서울대는 고은(74) 시인을 1년 동안 기초교수로 임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대는 고은 시인과 1년 단위로 초빙교수 임용 계약을 맺었으며 양측의 의견에 따라 1년 단위로 2차례 더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1학기부터 임용되는 고은 시인은 올리버스식의 프로그램인 '관악모둠강좌'에서 '우리들의 안과 밖'이라는 3학점 짜리 정규 교양과목을 맡아 강의하게 된다.

'관악모둠강좌'는 일반교양 과목 가운데 한 주제나 인물, 사건 등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 종합적 사고력을 키운다는 취지로 지난 2005년 도입됐다.

내방

▲이상면씨(전남도 정무부지사) ▲배양자씨(공보관)

5대 광주태권도협회장 취임 윤판석 회장

"일상에서 즐기는 생활태권도 만들것"

"지난 63년 전남체육관이 첫 문을 열었을땐 그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최근 제 5대 광주태권도협회장으로 취임한 윤판석(60·9단·전남체육관장) 회장은 전남체육관과의 첫 번째 행사였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당시 군 제대 후 말행이던 고 윤동열관장의 권유에 따라 교복(조교)으로 전남체육관에 입문한 윤 회장의 눈에 들어온 것은 차기운 마룻바닥과 체육관 한켠에 매달려 있던 샌드백이 전부였다.

요즘 체육관 시설에 비하면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국가(國技)인 태권도가 광주·전남에 뿌리내리는데 한 끝을 한 훈련도구였다.

"한 겨울에 모래가 가득 채워진 샌드백을 때리면 빼가으스러지는 것 같더군요. 찬바람이 쇠소리를 내던 겨울에도 체력단련을 위해 매일 무등산을 오르내렸지요."

전남체육관 5형제 '태권도 가족'

윤 회장은 변변한 훈련도구 하나 없었지만, 태권도에 대한 열정만은 뜨거웠던 전남체육관 시절이 지금도 그립다고 했다.

전남체육관은 63년 개관 이후 한때 매년 전국체전 지역 대표 24명 중 절반 이상을 배출한 만큼 명문도장으로 자리잡기도 했다. 윤 회장도 전남체육관이 배출한 5형제 태권도 가족으로 유명하다.

지난 63년 전남체육관을 설립한 고 윤동열관장

(92년 작고·전 조선대 교수)이 맏형이고, 윤판석 회장은 둘째다. 그 밑으로 윤웅석 관장(58·9단·만호 태권도스쿨)과 윤웅철(51·송원여중 교사), 윤오남(48·조선대 체육대학 교수) 등 5형제가 모두 태권도인이고, 전남체육관 출신이다.

당시 군 제대 후 말행이던 고 윤동열관장의 권유에 따라 교복(조교)으로 전남체육관에 입문한 윤 회장의 눈에 들어온 것은 차기운 마룻바닥과 체육관 한켠에 매달려 있던 샌드백이 전부였다.

요즘 체육관 시설에 비하면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국가(國技)인 태권도가 광주·전남에 뿌리내리는데 한 끝을 한 훈련도구였다.

"한 겨울에 모래가 가득 채워진 샌드백을 때리면 빼가으스러지는 것 같더군요. 찬바람이 쇠소리를 내던 겨울에도 체력단련을 위해 매일 무등산을 오르내렸지요."

윤 회장은 시민들이 외면하는 한국 태권도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어린 학생들은 학교 일정에 쫓겨 태권도를 배우지 않고, 어른들은 일상에 쫓겨서 안해요. 이러다가 일본의 유도처럼 올림픽 금메달도 모두 다른 나라에 내주고 말겁니다."

윤 회장은 "태권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활체육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중국인들이 공원에서 태권권을 하는 것처럼 태권도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광주태권도협회를 맡은 윤 회장은 "첫 번째 역점 사업으로 광주 5개 구에 시민들이 무료로 태권도를 배우고, 또 태권도에 쉽게 다가설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사진=위치량기자 jrwi@kwangju.co.kr



44년 교직 마감 이광운 전남도교육청 교육국장 "제자들이 가장 큰 재산"



이광운(62) 전남도교육청 교육국장이 44년 교직생활을 마감한다.

이 국장은 1963년 광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화순·능주초등학교에서 첫 교권을 잡은 후 이달 말 정든 교직을 떠난다. 지금까지 이 국장의 가르침을 받고 사회에 진출한 제자들만 1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 국장은 장흥고와 전남 외국어고교, 나주여자상업고 교장을 역임하는 등 일선 학교에서 33년간 근무한 뒤 전문직으로 자리를 옮겨 도교육청 연구과와 장학사, 중등교육과장, 장성교

육장 등으로 11년간 일했다.

2005년 전남 교육의 키(Key) 역할을 하는 교육국장을 맡아 일선 교사 외국어교육 연수프로그램 개선, 원어민교사 확대 배치, 예능교육 향상 등 열악한 농어촌 교육의 발전에 일정 정도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직 40여년의 이 국장은 감회는 남다르다.

이 국장은 "첫 월급이 4천원, 하숙비가 월 800원이었다"면서 "많지 않은 월급이었지만, 아이들의 초등초등한 눈동자를 보면서 교직의 보람을 느꼈

다"고 회고했다.

또 "얼마 전 시내 모 호텔에서 호텔 사장이라는 사람이 내 제자라면서 까듯하게 인사를 해 '나는 큰 돈은 모으지 못했지만, 사회에서 내로라하는 제자가 있어 큰 보람이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금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이 국장은 법정 스님의 말을 인용해 "만약 나뭇가지에 철 다란 꽃과 꽂은 잎이 매달린 채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듬해 봄이 와도 새 꽃과 햇이 이 돋나지 못한다"며 웃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스피어스 머리카락 "100만 달러에 사세요"

'대머리'로 깜짝 변신한 미국의 유명 팝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머리카락이 경매사이트인 이베이에 등장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타자나 소재 '에스더 미용실' 원장은 20일 경매사이트 이베이를 방문, 살벌 패션으로 세계 톱뉴스를 화려하게 장식한 스피어스의 머리카락을 100만달러에 팔겠다고 매클로를 내놨다.

원장은 스피어스가 막내 남친 '레드 불스' 음료수와 파란색 담배 라이터도 함께 내놓았다.

원장의 남편은 수의의 일부는 암투병 어린이들에게 기발을 제공하는 플로리다 소재 자선단체인 '사랑의 머리카락'(Locks of Love) 등을 위한 자선 기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창·동문회

▲복성중 제 17회 동창회(회장 유영운) 월례회=22일(목) 오후 7시 일송장, 525-9977

▲진흥고 총동창회(회장 임경범) 월례회=22일(목) 오후 7시 동현회관, 515-8808

▲광주 인성고 총동창회(회장 안종명) 제 13차 정기총회=24일(토) 오후 6시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 011-615-0190

▲광주여고 총동창회(회장 안종명) 제 13차 정기총회=24일(토) 오후 6시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 011-615-0190

▲고씨 광주종문회(회장 고석태) 신년하례회=24일(토) 오후 11시 탑하우스, 011-646-1373

▲고씨 광주종문회(회장 고석태) 신년하례회=24일(토) 오후 11시 탑하우스, 011-646-1373

▲광주여고 총동창회(회장 안종명) 제 13차 정기총회=24일(토) 오후 6시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 011-615-0190

▲고씨 광주종문회(회장 고석태) 신년하례회=24일(토) 오후 11시 탑하우스, 011-646-1373

▲고씨 광주종문회(회장 고석태) 신년하례회=24일(토) 오후 11시 탑하우스, 011-646-